

# 지역민과 소통 돋보인 국립광주박물관

### 40년간 발굴 100회·특별전시 130회 6일 개관 40돌 맞아 베틀시장 등 풍성 인디밴드·미술 공연·온라인 이벤트도

광주 신장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된 대규모 도자농경 유적이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 저습지가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국가사적 제 375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 생활문화와 농경문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사 유적이다.

지난 1992년 국도 1호선 개량공사가 진행되면서 국립광주박물관이 긴급조사를 실시해 토기, 도량, 주거지 등이 발굴됐다. 이러한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거나,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고대 한국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이밖에 여수 안도패총 발굴조사,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발굴, 전시, 교육, 데이터화 하는 등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박물관이 올해로 개관 40돌(12월 6일)을 맞았다. 지난 1978년 개관해 만 불혹(不惑)을 맞이한 것.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뜻처럼 박물관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박물관은 해방 이후 우리 손으로 건립한 최초 국립박물관이다. 그동안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소임을 해왔다. 전시관으로 출발했던 건축물은 연구관과 교육관 신축으로 모두 3개동으로 확충됐다.

지난 40년 동안 발굴조사 100회, 특별전시 130여 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진행된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을 비롯해 '전통문화 최후의 거장, 의재 허백련', '특별전 공재 윤두서', '신창동유



국립광주박물관이 6일로 개관 40돌을 맞았다. 사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적-2천년 전의 타임캡슐',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실시했다.

'외규장각 의궤'는 병인양요(1866) 당시 145년 만에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은 외규장각 의궤를 통해 조선왕실의 기록문화를 보여주었다. 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자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개관 당시 1000여 점이었던 소장품은 현재 13만여 점으로 늘었다. 그 가운데 광양 중흥산성 상사자석등(국보 제103호),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유물은 국보(국보 제143호) 2점과 현자총동(보물 제1233호),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874호)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박물관은 40주년을 기념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베틀

시장이 개설되고 아울러 고무신 던지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8일 오후 2시에는 '광주악국'의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8일과 9일 오후 2시에는 광주 인디밴드 '센치한 버스'의 공연이, 오후 3시에는 독일 세계 거리마술대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한국 코미디 마술사 'Crazy Mr.J'와 이발공의 '미술&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현재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특별전 '全羅千年-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이 내년 2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음악회와 '40돌 축하메시지 남기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념음악회에서는 김주희 명창이 남도 전통 판소리 무대를 선보인다. 온라인 이벤트는 박물관 누리집과 연계해 SNS에 축하메시지를 남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26명에게 오는 11일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062-570-70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서 만들어진 독립영화 만나다

### 광주독립영화제 7~9일 열려 '김군' '국광교회' 등 31편 상영

광주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를 만나는 '2018 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최성욱)가 오는 7~9일 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 GIFT에서 열린다.

올해 7회를 맞이한 이번 영화제는 '무대에서 꼬핀으로'를 주제로 미투 운동, 젠더감수성 등 평등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담아낸 31편을 상영한다.

영화제 첫날인 7일 오후 7시 30분 상영하는 개막작은 김경자 감독의 '풀이 놓는다'이다. 이 작품은 '들불야학'의 노동운동가 박기순 열사의 행적을 여성 감독의 시선으로 70분간 따라간다.

다음날 오후 7시 30분에는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초청해 상영한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 거리에서 촬영된 흑백사진 속의 한 무장 시민군을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이 북한군, 이른바 '광수 1호'라는 역사 왜곡을 반박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참여 당사자들을 인터뷰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광주1318' 프로그램에서는 '화양연화(문우림)', '도돌이표(임재은)', '한편쯤(김시우·권민하)', '간이역(정호진)', '기인(류소연·엄석환)' 등 제쳐있는 단편영

화 5편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다큐멘터리 12편을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신작선'도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박지영 감독의 '우리들의 저녁식사'와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김광철 작가의 예술세계를 다룬 '보더리스: 그외나(백종록)', '호모 시네마쿠스(최성욱)' 등이 상영된다. 7일에는 북구 중흥동 주민들이 직접 만든 '봉사왕', 광산구 분광동 주민들이 힘을 합친 '소원꽃'을 볼 수 있는 '마을영화 신작선'이 펼쳐지며 송원재 감독의 '죽은 시간' 등 지역 영화인들의 단편 신작을 만나는 '단편극영화 신작선 1·2'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9일 오후 5시 20분 광주의 오월을 다룬 폐막작 '국광교회'와 '봄날'로 영화제는 끝을 맺는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모현선 감독의 '국광교회'는 대학 내 성추행을 덮으려한 한 교수가 피해자인 조교를 찾아 5·18의 참상이 남은 국군광주병원까지 와서 자신의 방관자적 삶을 목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단편 '봄날'은 무용수들의 몸짓, 수화통역사의 손짓으로 광주의 모습을 풀어낸다.

폐막작 상영 뒤에는 '광주영화인의 밤' 행사를 열어 지역 영화인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무료 관람이며 영화 상영 뒤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062-222-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7~9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펼쳐진다. 강상우 연출 '김군'

# ACC 지난해 인기 어린이 공연 새단장

### '겨울 시즌공연' 트레저헌터스·깁깁나무 등 선풍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공연들을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극장에서 '2018 어린이극장 가을-겨울 시즌공연'으로 다시 선보인다.

ACC 창작·제작 공연들은 새단장을 한 뒤 어린이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어린이뮤지컬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스'는 오는 8-9일 오후 2시, 5시 만날 수 있고 ACC 1호 창작극공연으로 탄생한 인형음악극 '깁깁나무'는 다음 달 15-16일 4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른다. 카지흐스탄 설화 '재즈티르나크, 페리 그리고 마마이'가 원작인 '깁깁나무'는 인형과 영상이 어우러져 유쾌한 무대를 펼

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어린이극장 개관공연 당시 전회 매진을 기록한 '클라운타운'을 다시 초청한다. 미미와 친구들은 빨간 코 클라운들이 모여사는 클라운타운을 벗어난 바깥 세상으로 나가 자칭 지상 최고의 서커스 단장 말볼리오를 만난다.

극장 광대 전문 극단 '벼랑끝날다'가 마임, 마술 등의 여러 재주들로 채운 '클라운쇼'를 선보인다. 21일 오후 7시 30분, 22일 오후 3시. 전 공연 관람료 1만5000원. 예매 문의 acc.go.kr,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아와 친구들-트레저헌터스' <ACC 제공>

# 김을현 시인 "3대 가족이 화보시집 만들었어요"

### '엄마 아빠 딸' 9일 출판기념회

가족 삼대가 함께 펴낸 가족시집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가 열린다.

김을현 시인은 오는 9일 광주 양림교회 어비스홀에서 '엄마 아빠 딸' 가족삼대시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작품집은 김 시인의 노모 김기운 작가(94)와 딸 김승샤별(대성초6)이 함께 만든 화보시집이다. 시집은 지난 3년간의 작업 결과물로 모두 1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여기에 김기운 작가의 그림 40편도 담겨 있어 시와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취미 생활로 손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 할머니는 지난 2015년 양림미술관에서 '엄마와 크레파스 새를 부르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노대동 빛고을노인타운, 사



작도서관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김승샤별 어린이도 '용아백일장', '맥지정소년백일장'에서 입상을 시작으로 다문화 문예지 '나눔문학' 등에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번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는 김기운 할머니의 작가 시인회를 시작으로 박예정 낭송가, 이겨울 시인, 김경만 가수, 놀이세상 문예희 대표 등이 출연해 작은 음악회를 꾸밀 예정이다.

김을현 시인은 "가족 삼대시집의 작품성보다 가족애에 초점을 맞추고 발간하게 됐다"며 "세대 간의 소통, 가족간의 유대가 주위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 커피야, 부탁해

용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강남매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광선 장경수 김동준 우정환 윤소이 김결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

CHANNEL, BM CULTURES contents, 흥행보도, FCM 광주광역시, 카페티아, COSTIX, WESTWOOD, Ezi, Rakuten Viki